

# 여수시 '2026 세계 섬 박람회' 밑그림 곧 나온다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365개 섬 활용 힐링과 감동 줘야 설문조사서 '참여' 긍정적...공청회 등 거쳐 다음달 최종 용역 결과 발표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한창이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보고회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자문단, 용역사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세계섬박람회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보고회는 용역사인 (주)플레이스랩의 중간보고 후 자문단 등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 시장 마무리 인사말 등으로 이어졌다.

플레이스랩은 지난 5월 여수시와 계약 체결후 기초조사와 자료수집, 섬 생태와 문화 탐방,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본격 수행했다.

이를 통해 여수 국제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최종 용역 결과물은 착수보고회와 설문조사, 공청회, 부서 의견 수렴, 최종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완성된다.

용역사에 따르면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수도권(30%)과 광주·전남권(18%)을 중심으로 섬박람회 설문조사를 펼쳤다.

설문 내용은 여수 방문 매력도와 섬 관련 가치 인식 정도, 박람회 방문의사, 기대 프로그램 등 17개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역사 설문 결과 1회 이상 여수를 방문한 응답자가 62.9%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가 높음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이 부정을 압도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섬에 대한 기대 요소로 힐링과 휴양 등 정적인 활동이 가장 필요하고 선박·체험 등 동적인 활동도 일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용역사의 중간보고 후 세계 섬 박람회 자문단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이어졌다.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섬과 미래"에 대한 주제로 적합한지,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태균 전남도 섬해양전문위원은 "여수와 연결된 자매 지자체 등과 연계한 행사로 당위성을 높이고 여수가 보유한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올해 말 발표될 최종 용역 결과에 맞춰 2020년 상반기 중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가운데)이 지난 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다. 하반기에는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를 협의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고, 박람회 개최 전까지 11개 연륙·연도교는 물론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여수시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참여와 홍보에도 행정력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시민 190여명으로 구성된 여수 섬 박람회 시민 포럼에서 섬투어와 섬 박람회 홍보, 섬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알리기 계획이 본격 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목포시·신안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여수의 365개 섬과 11개 연륙·연도교를 주제로 한 홍보 체험 이벤트도 진행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여수의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꼭 필요하다"며 "여수의 제2의 도약을 불러 올 수 있는 세계 섬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종 국제행사 승인까지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시 수의계약 확대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

여수시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관급공사 수주율을 제고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확대한다.

수의계약 확대대상은 ▲천재지변 또는 긴급행위 ▲응급복구·응급조치 사업 ▲재공과 입찰 불성립 사업 ▲나찰자가 없는 사업 등이다.

대형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공동도급 발주와 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건설장비 사용도 권장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8천만 원, 물품 용역 5천만 원 이하 등의 사업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있다.

2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한다.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산립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산립조합 등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있다.

여수시는 수의계약 확대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록업체 순번제를 통해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공사를 배정하고,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yeosu.go.kr>)을 구축해 여수시 홈페이지에 관급공사 진행상황도 공개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와의 계약 확대뿐만 아니라 여수시에 없는 업종 유치 활동도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위험한 낙석 제거 위해 마래2터널 11~29일 교통통제

여수시는 낙석 위험성 제거를 위해 11일부터 29일까지 여수 마래2터널(사진) 교통을 통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은 터널을 임시 개통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마래2터널 특별점검에서 낙석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며 따라 보강공사를 준비했다.

공사 기간 운전자들은 국도 17호선-만흥IC-만성리해수욕장으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 마래2터널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한 이후 매년 특별점검과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116호 마래2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개통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터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정과 망치만으로 터널을 만든 아픔이 서린 곳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한국석유공사-하이솔루션, 단일코팅 업무협약 체결

공동 시험연구·적용성 테스트 진행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굴지의 단일코팅 전문 회사인 하이솔루션이 단일코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에 따르면 최근 단일도료(페인트) 업체 하이솔루션 본사 회의실에서 석유와 휘발유 등 저유량 유증량 감소를 위한 단일코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하이솔루션은 앞으로 공동 시험연구와 적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또 상호 기술협력과 정보 공유 등 실무 협력을 통해 단일코팅에 따른 유증량 감소를 측정,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그동안 휘발유와 석유 등 보유 저유량코팅의 자연 증발(유증량 감소)로 인해 매년 큰 손실을 입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이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단일코팅 기술이 적용되면 차별화 된 얇은 코팅만으로 우수한 단일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한국석유공사



이를 통해 휘발유와 석유 등 보유 저장탱크의 자연 감소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솔루션은 심각한 환경 문제가 지적돼 온 기존 단일제와 달리 미국 트네멕스와 스페인 MCU사 등이 보유한 세계적 단일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체 기술로 단일 코팅도로 개발에 성공한 국내 굴지의 전문 기업이다. 현재 GS칼텍스와 포스코 등에 전문 기술을 시공 중이며 삼성SDI 배터리 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코팅 시험도 진행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삼일동, 착한기업 '코리아 월드서비스'에 '행복한 동행' 현판식

여수시 삼일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기업을 격려하고 나섰다.

5일 여수시 삼일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매년 꾸준한 지역 사랑 나눔을 펼쳐온 착한기업 코리아 월드서비스(주)에 대한 '행복한 동행' 현판식(사진)을 가졌다.

행복한 동행 현판식은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삼일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기업을 칭찬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원로이송관로 관리 전문회사인 코리아 월드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여수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매년 1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400만원 가량의 사랑의 쌀 지원도 이어오고 있다.



김완식 코리아월드서비스 대표는 "지역기업으로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지속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 마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우리가 보낸 따뜻한 시선이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갑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